

# 내실있는 공약으로 배심원 마음 잡아라

## 새정치 전남지사 경선 이틀앞으로

### 3후보 내놓은 공약 살펴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막판까지 진흙탕 비방전이 계속되면서 각 경선 후보들의 내실있는 공약들의 빛이 비래고 있다.

광주일보는 10일 실시되는 배심원단 투표를 앞두고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각 후보들의 경쟁력 있는 공약들을 조망했다.

우선 주승용 후보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단계 '철도 르네상스' 공약이 눈에 띈다.

경전선 복선화, 호남 고속철, 남해안 고속철도, 목포-제주 해저터널, 목포-군산 서해철도 구축 등 굵직한 5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호남선과 경부선, 남해안 고속철도를 연결, 목포와 서울, 부산을 삼각 축으로 연결시키고 목포-제주 해저 터널로 호남경제권과 제주경제권을 연계시켜 21세기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주 후보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가을 수매로 정산하는 '농업인 월급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와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생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통해 섬 주민 복지도 챙기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전남의 따뜻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실버산업을 육성,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낙연 후보의 '생애주기별 공약'은 출산에서 보

## 주승용



**철도 르네상스**  
**농업인 월급제**  
**여객선 공영제 도입**

## 이낙연



**공공형 산후조리원**  
**농어촌 버스 준공영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 이석형



**도민 정책 배심원제**  
**도민 감사관제**  
**인사 드래프트 시행**

육, 교육, 청년 취업, 노인 복지 등을 아우르면서 전남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약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공약 위주에서 벗어나 '요람에서 노후'까지 살피는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형 산후조리원 마련, 어린이집 직접 관리, 전남 인재육성기금 확충,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채용, 경로당 태양광 발전기 부착, 독거노인 친구 만들어 주기 등 다채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버스 준공영제, 100원 택시 공약 등은 복지의 개념을 교통 분야까지 확대한 사례며 농어촌 작은 영화관 건립,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농어촌 마을 공동 급식 실시 등의 공약에는 이 후

보의 섬세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남 지역 소방서 확충,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공약을 내놓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연륙, 연도교 조기 완공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형 경선 후보의 경우 도민 참여 공약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도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인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도민 참여 예산제도', '도민 정책 배심원제', '도민 감사관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이 후보는 실직자들이 함께 일할 과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인사 드래프트' 제도와 기초단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공직자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도 신선한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서울시장후보 경선 나서는 김항식 前국무총리

# “국가와 사회서 받은 혜택 이제 정치로 돌려드려야죠”

장성 출신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나서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오는 12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광주일보는 지방지로서는 유일하게 김 후보를 만나 그의 소신과 비전을 들었다.

## 통합과 포용... '하나의 서울' 만들 것 국민 마음 공감에 민생정치 출발점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다소 의외였다. ▲42년간 법원과, 감사원장, 총리로 국민을 섬겨 온 것을 큰 공지로 여겨왔다. 애초 서울시장 출마 뜻이 없었다. 사회원로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유에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역과 이념적인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야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지나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통합과 포용'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서울시만 해도 인구 1000만의 글로벌 메가시티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된 경제적 계층, 이념적 프리즘, 세대간 불통 등 얽히고 설킨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방식으로 '그들만의 서울'을 만들고 있고, 글로벌 시티를 마을공동체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모두가 참여하고 어울려지는 '하나의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원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광역도시의 주민은 교통난, 주택 부족, 환경 오염 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풀어나갈 방안은 있나.

▲주택, 교통, 환경 등은 대도시의 주요 현안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에 97.3%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은 멀기만 하고, 주택가격은 해외도시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신규주택 공급이 적은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을 조기 착공해서 시청~강남 간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특히 요즘 문제되는 미세먼지로 서울을 비롯한 국토 서남권인 호남 주민들도 고통 받고 있는데 중국, 몽골, 일본 등 미세먼지의 전원지와 피해지 주요도시의 시장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처하고 연구 하보도 만들겠다.

-이러한 '민생정치'가 회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는 국민의 삶,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진도 세월호 참사만 해



◇프로필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

도 해당 공직자들은 애굽는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 원성이 높았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는 물론 단체장의 할 일 중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대한 소회는. 또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현실 정치는 막말과 이전투구로 치닫고 정책이 나 비전경쟁은 실종되고 있다. 경선 룰 결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잡음과 갈등 과정에서 당의 경선관리나 상대 후보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인간적 회의를 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낮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선거 과정에서 '호남 표심'에 호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호남출신의 후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출신으로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나, 영남출신의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권에서 당선된 것을 두고 지역감정을 이용했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 초기 몇 번을 망설이다 진도에 다녀왔는데,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가슴이 아팠다. '호남표심'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마음에 호소하겠다. 고향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지도자 잘못 만난 희생자들의 슬픔과 분노



김인영의 '그림 생각'

### (70) 구조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남긴 말이다. 인간은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 한걸음 더 진보한다고 믿기에 '역사의 반복'은 흘러간 명언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온 국민을 침묵 속 집단 트라우마 상태로 빠뜨린 '세월호 침몰사고'는 참혹했던 역사적 사건을 미술작품으로 영원히 기록해놓은 그림 한 점을 떠올리게 한다.

1816년 6월 프랑스의 식민지인 세네갈로 출항하던 범선 메두사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다. 배에 탄 사람은 모두 4백여 명으로 여섯

척의 구명정에는 2백50명밖에 탈 수 없었고, 버려진 쉼이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1백49명은 메두사호의 잔해로 뗏목을 만들었다. 여섯 척의 구명정에 뗏목을 묶어 끌고 가다 속도가 나지 않자 선장은 뗏목과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린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데오도르 제리코(1791~1824)의 '메두사의 뗏목'(1819년 작)은 그렇게 버려진 뗏목 위에서 결사적으로 죽음을 싸우고 있는 생존자를 묘사하고 있다. 또 다시 물러오는 검은 구름, 집체 만 한 파도,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 희망적이게도 뗏목 오른쪽에는 멀리 수평선 너머 배를 발견한 두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원전을 흔들고 있다.

12일 만에 범선 아르고호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는 생존자가 15명에 지나지 않았다. 제리코는 충실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2명의 생존자와 만



데오도르 제리코 작 '메두사의 뗏목'

나 절체절명의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실제 크기의 뗏목을 만들기도 했다. 제리코는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을 '파리 살롱전'에 전시함으로써 미술을 통한 사회적 발언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눈물을 삼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그 발걸음들에서 제리코가 잊지 않기 위해 그림에 새겨 넣었던 슬픔과 분노를 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HNT 하나투어

#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OPEN EVENT!

6월15일까지 이벤트 제공!

상담자대상	예약자대상
1) 푸르드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1) 쌍당 최대 하나투어 50만 마일리지 적립! *일부 상품 제외
2) 휴대용 트래블백 제공	2) 필립스 전기포트 및 영화 예매권 제공
	3) 지역별 다채로운 특전 및 할인 제공

##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기!

**전세계 항공권/호텔/여행**  
여행/숙박/항공/입장권 등 자유여행 하나 Free상품 워딩 원스톱서비스 제공

**쇼핑&라이프 스타일**  
여행 전 하나샵 원스톱 여행준비 여행용품 소싱됨

**여행 후 마일리지 소핑**  
해외특산물/가전/유아/식품/리빙 등 회원 우대 소핑됨

**생활곳곳에서 하나투어 마일리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문화/공연 예매 하나프리 Ticket**  
뮤지컬/콘서트/연극/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예매 하나투어 마일리지 클럽 회원 특별 혜택 CGV, 메가박스 영화예매시 마일리지 사용

**제휴**  
공항철도/공영리무진/MK택시 인천공항 외투 보관 할인 인천공항 레스토랑, 사무나 할인

**마일리지 사용**  
<http://mils.hanashop.com/hanacourt/keage/>



문의전화 062)228-1199 /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113-1